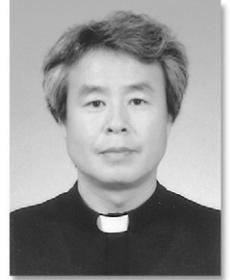


주일의 말씀

‘먹는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박승재 알로이시오 신부
지묘성당 주임

어느 신학생과 여행하는 중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전골을 시켜 먹었는데 잘 먹던 신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부님! 먹는데 있어서 거지와 부자와의 차이점이 무엇지 아십니까?” “뭘데?”

“부자는 먹고 싶을 때 먹지만 거지는 있을 때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이 먹어야 됩니다.” “나는 이미 많이 먹었으니 배부른 거지네. 지금 먹고 있는 거지모습을 한 번 찍어야겠다.”고 거지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그 거지가 지금은 신부가 되었는데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사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어떻게 한 끼를 때우느냐에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까에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러 가게 되면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를 정할 때도 그렇고, 반점에 가서 짬뽕 먹을까 자장면 먹을까를 결정할 때도 그렇지요.

‘먹는다! 먹는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군중을 맞이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병자까지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먹을 음식까지 신경 쓰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람은 누구나 먹어야 삽니다. 먹지 못하면 사는 것이 힘듭니다. 먹지 못하고 허기질 때는 아무래도 성질이 나고, 해야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나태해 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가 되면 먹어야 합니다. 사람의 요구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사람들

에게 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는 당신의 몸까지 내어 주십니다. 당신의 몸을 빵으로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사람이 죽지 않게, 영원히 살게 하도록 당신의 몸을 빵으로 내어 주십니다. 이 빵을 먹고 제대로 살아가라고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체성혈 대축일입니다. 성체성사를 기념하고 그 신비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 의미는 나눔과 일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사람들이 당신과 일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 삶이 제대로 된 삶 곧 예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합니다. 신자이면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삼겹살 구워먹는 것은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맛있는 전골을 먹는 것은 좋아하면서, 회 먹는 것은 좋아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이는 신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두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당신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내어 주시는 몸,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들을 위하여 내어 주시는 몸을 정성스럽게 받아 모셔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루카 9, 17

창세14,18-20 1코린11,23-26 루카9,11L-17.



주일 미사를 봉헌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죠?

교구 사목국

“주일은 신자들의
신심을 일깨워 주는
최초의 축제이다.”

▲ “주일미사 참례하
기가 하늘에 별 따
기 만큼이나 어렵
다” - 아프카니스
탄에 유엔 평화유
지군의 일원으로
파견돼 활동 중인
한국군 대위.

▲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당을 찾을 수 없었다” -

가족과 함께 보름간 동남아시아 3개국을 여행하
고 돌아온 가장.

▲ “도로가 밀려서 주일미사에 참례하지 못했
다” - 놀이동산에서 놀다가 주일 저녁미사에 참례
하지 못한 연인.

문제) 이들은 다음 주일 성당을 다시 찾았을 때
고해성사를 보지 않고도 영성체를 할 수 있을
까요?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한국교회법)제 74조에
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주일이나 의
무 축일에 미사참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신
자는 공소예절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3항),
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
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서봉독, 선행 등으

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4항)”

군인, 경찰, 소방관, 환자(노약자), 의사, 간호사, 생
계를 위해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 등등 많
은 분들이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주일미사 참례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법은 이런 분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일미사 참례의 의무를 관면해 줍니
다. 즉 다음번 미사 때 고해성사를 보지 않고도 성
체를 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위의 사항은 주일미사 “참례
의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지, “주일미사를 대신”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일미사를 대신할 수 있
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미사는 성체성사의
신비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유일무이한
시간이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오
늘 주일미사 못가니까 주님의 기도 33번으로 대
신했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셨죠?

따라서 정말로 “부득이한 경우” 성당에 갈 수 없
다면 공소예절이나 묵주기도, 성경봉독 또는 선행
을 통해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일 미사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죠. 신앙
적인 관점에서 내 자신의 신앙과 구원을 위해
미사에 참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먼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겁
니다.

“주일은 신자들의 신심을 일깨워 주는 최초의 축
제이다.”(전례헌장106항)

가진 것은 적어도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 미사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입당성가

1 나는 만나이다

화답송

◎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19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물리라.

파견성가

200 열렬하신 주의 사랑

영성의 향기

:: 하느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부르십니다.

제가 소임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자주 부르게 됩니다. 컴퓨터에 몰두해 있을 때는 제가 이름을 불러도 알아 들지를 못합니다. 하느님께서도 당신의 일을 계속 하시면서 우리들의 협조를 구하시기위해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 골몰해 있으면 그분의 부르심을 알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지언을 통해서 나의 협조를 원하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 들을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예"라고 대답할 수 있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 두 가지 증언

생리학 부분 노벨 수상자였던 알렉스 캐럴은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합니다. "생리적 분비작용과 마찬가지로 영육에 미치는 기도의 영향도 증명될 수 있다. 나는 한 사람의 의사로서 인간의 모든 시도가 실패했을 때 침착하게 기도함으로써 질병과 우울증에서 회복되는 사람들을 보아왔다. 기도는 성숙한 행위로서 인간의 궁극적인 성취이자 인격성장에 필수적 요소이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완전하고도 조화로운 일치를 이룰 수 있으며 이 일치는 인간에게 힘을 준다."라고 하며 인간에게 기도란 인격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백지영

- 권 가타리나수녀 -

짧은 글 깊은 생각

결심의 호칭 기도



오늘만은 노력하겠습니다. 제 삶의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루를 체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만은 제가 나서는 것을 극도로 조심하겠습니다. 아무도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고쳐주려 하거나 수정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자신을 빼고는 말입니다. 오늘만은 제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복해하겠습니다. 다시 다른 세상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오늘만은 주변 상황이 나와 나의 욕망에 맞도록 요구하지 않고 나 자신을 주변 상황에 맞추겠습니다. 오늘만은 제 시간 중 10분을 좋은 책을 읽는데 바치겠습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 음식이 필요하듯이 좋은 책은 영혼이 사는데 필요하니까요, 오늘만은 착한 행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만은 제가 하기 싫은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느껴지면 아무도 그것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오늘만은 정확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비록 제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가지 나쁜 점을 피하겠습니다. 즉 서두르는 일과 망설이는 일 말입니다. 오늘만은 확실히 하느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그 외에는 마치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저를 보살펴준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비록 상황이 그 반대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만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모든 것을 기뻐하고 호의를 믿는데 두려움을 갖지 않겠습니다. 백지영

- 교황 요한 23세 -

사제의 해 폐막 미사

- 일시: 6.11(금) 11:00, 성모당
- 미사집전: 조환길 타대오 주교

★ 모임 행사 ★

시편성가연수(St.김정선,발성법(박재연)회비1만원

- 일시: 6.6(일) 15:00, 장소: 가톨릭음악원(255-4847)

떼제기도회

- 일시: 6.12(토) 20:00, 장소: 삼덕 젊음이성당

★ 성소 모임 ★

백합 성소모임

- 일시: 6.13(일) 14:00
- 장소: 부산 대연성당 수도원내
- 문의: 윤말다 수녀 010-5313-0241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성소모임

- 일시: 매월 둘째주 토요일 15:00~18:00
- 장소: 부산 남천성당 앞 북카페
- 대상: 고등·대학생, 일반, 문의: 02-744-4702

★ 파정 ★

군중후원회 일일피정

- 일시: 6.7(월) 10:00~17:00, 교구청내 대강당
- 주제: 하느님과, 이웃과 잘살아보세!
- 회비: (중식)3천원, 문의: 군중후원회 256-0815
- 구급: 후원회사무실,분당지회장,당일현장판매

※우리교구 군중신부 12분과 함께하는 피정

빛사랑.전례 음악연수 1

- 일시: 6.19(토) 18:00~22:30
- 장소: 성심교육관(현충로2번 출구)
- 대상: 청년,일반신자전례및성가봉사자
- 회비: 1만원, 신청: 010-2649-2045
- 주최: 예수성심시녀회 대구관구

★ 모집 교육 ★

대구가톨릭대학교 "한국어교원양성과정" 개강

- 지원자격: 대학교3·4학년및 학사학위 이상소지자
- 서류접수: 6.1(화)~16(수)
- 개설기간: 7.5(월)~8.13(금) 18:20~22:00
- 문의: 850-3160(http://kli.cu.ac.kr)

Student First! "학생이 사랑받는 대학"

36차 영국,아일랜드 영어연수

- 주관: 마 신부님
- 초·중·고: 7.25(일)~8.15(일)
- 대학생·일반: 6.27(일)~8.8(일)
- 문의: 그린피스 E&T 02-569-1331

※ 장기간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필리핀영어연수

- 일정: 7.18(일)~8.28(토) 6주
- 대상: 초4~중3(35명), 장소: 필리핀 바콜로드
- 문의: 656-6655 (www.dgyouth.net)

※ 대학생 해외봉사&어학연수단체출국모집

푸른평화가족캠프

- 일시: 7.24(토)~25(일) 1박2일
- 중년여성을 위한 표현예술치료
- 일시: 6.8(화) 10:00~12:00
- 주관: 푸른평화예술치료상담연구소
- 문의: 794-6022/ 010-3513-2225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주영어마을

초·중학생 영어캠프 선착순모집

- 캠프기간: 7.26(월)~8.21(토)
- 접수기간: 6.7(월)~11(금)
- 접수: www.gev.ac.kr
- 문의: 054-777-8000

성요셉 재활원 입사자 모집

- 대상: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054-954-4176)

교향청어린이전교회 여름캠프 안내

- 일시: 8.10(화)~12(목)
- 장소: 경남산청의 성심원교육관
- 대상: 초등부 4~6학년
- 회비: 5만원, 마감: 6.25(금)
- 문의: 02-2268-7103

에니어그램 1단계 8주간 교육

- 일시: 6.9(수) 저녁반 19:00(15명 선착순)
- 장소: 샬트르 성바로로 수녀회 상담심리센터
- 신청: cafe.daum.net/spc1009
- 문의: 254-2664/ 659-3456

보다더 나은 혼인생활을 위한 -ME주말초대

- 대구278차: 6.25(금)19:00~27(일)18:00
-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473-5712

★ 직원 채용 ★

논공가톨릭 병원 간호사, 간병사 모집

- 문의: 010-2943-8337

★ 안내 ★

교구 법원 공시(253-9550)

- 아래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관련된혼인에대해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조은주(로사), 김진성(안드레아), 한미영(아네스), 서복희(수산나), 손명진

매주 월요 선교미사

- 일시: 매주 월 11:30, 계신교좌성당 문화관 3층
- 주관: 한국천주교가두선교단 781-6100

미사	일시	장소	미사	일시	장소
말씀후원회및사경2강연전교회월례미사	6월 7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지속적인성체조배회 미사	6월 7일(월) 오후 10시	한티순례자의집
5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6월 7일(월) 오전 11시	신명성당	가두선교단 월례미사	6월 8일(화) 오후 2시	성모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6월 7일(월) 오후 7시 30분	꾸르실료교육관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6월 10일(목) 오후 2시	성모당

성모아이한의원

- 잦은감기(열, 비염, 천식, 중이염)
 - 틱, ADHD, 식욕부진, 성장
 - 난치성 아토피
 - 언어(발달)장애, 자폐
- 대표원장 김 성 철 (비오)
- 지하철 2호선 성서공단역 8번 출구
☎ 592-1275, 593-1275

도우미 익스프레스

- 포장이사, 사무실이사, 일반이사
- 대표 양 말 순(루시아)
- 591-2424, 656-9911
- 010-2008-2329

성가정을 위한 결혼 정보

성가정결혼상담소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474-0025, 476-9275

가톨릭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지하철 입구

결혼상담

27년 전통의 성가정을 위한 만남의 장

성심결혼

558-3003, 644-4007

비산네거리(서부 초등학교 옆)
류성일(마리아) · 함(논나)

이연재 맥 의원

- (하지정맥류 전문병원)
- 원장: 이연재 (에릭)
-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 방향 200m

효경요양보호사교육원

- (노인복지센터 운영)
- ◎ 교육생 모집 ◎
- 국가자격증 무시험 자격취득
 - 신규반, 경력자반, 재적자(무료)교육반
 - 자격증반(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 ☎ 057-557-9057, 474-1577 센터: 564-1577, 475-1577
서비스 이용문의: 010-3153-9057

강북 행복을 주는 치과

환성3차아파트와 환성센터빌
아파트 사거리 파리바게트 3층

T. 323-2875

원장: 고상철(베드로), 조진석

라식, 백내장수술전문

김기산안과

김기산 안(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 257-8875 www.kisanlasik.co.kr